

<p>Just over a month ago we were celebrating the birth of a child far greater than Samson. We were singing at the close of the second verse of the Christmas carol, “Silent Night”, “Christ the Saviour is born, Christ the Saviour is born”. But that fact should not cause us to take Samson lightly. He, too, was a saviour – at his birth a saviour was born. The keynote of chapter 13 and indeed chapters 13-16 is found in verse 5 of chapter 13. As soon as Manoah’s wife is told she will bear a son, she hears his mission: “and he will begin the deliverance (the salvation) of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True, he will only begin to save, but even that constitutes him a saviour. The theme is still salvation. But there is one danger. Samson is such a larger-than-life character, a real larrikin, that we may become pre-occupied with him. We must not allow our focus on the saviour God raises up to eclipse the mighty and merciful God who saves.</p>	<p>불과 한 달 전쯤, 우리는 삼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린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고요한 밤”의 두번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를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구원자였습니다 –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나심이었습니다. 13장과, 13장에서부터 16장의 주안점은 13장 5절에서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듣자마자, 그녀는 그의 사명을 듣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실, 그는 단지 구원을 시작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그는 구원자로 여겨집니다. 요지는 여전히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르는 삼손은 실제보다 과장된 인물이며, 진정한 무리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강력하고 자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는, 그가 세운 구원자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p>
<p>1. The Grace God Maintains (verse 1) Here in verse 1, in a sense, is the same tedious refrain: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so the Lor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for forty years”. That is all. The next sentence introduces us to Manoah and his childless wife. We have Israel’s apostasy followed by God’s judgment and the beginnings of another story of God’s deliverance. However, there is something missing, something we have come to expect. There is no statement between verse 1 and verse 2 about Israel “crying out” to God in their distress. Here we have Israel – in the power of Baal and subject to the rule of the Philistines. It is an Israel who not only does not cry out in repentance from sin but also does not even cry out for relief from misery. They have, apparently, as the bondage to the Philistines continued for decades, grown accustomed to it. In fact, it would seem that in Samson’s time they had become content with it – surprised should anyone suggest otherwise (see 15:11).</p>	<p>1. 은혜의 하나님은 늘 지키십니다(1절) 어떤 의미로, 여기 1절은 똑같은 지루한 후렴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게 다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우리에게 마노아와 자식이 없는 그의 아내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변절과 뒤따르는 하나님의 징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어떤 것이 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곤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관련한 아무런 서술이 없습니다. 여기 바알의 권세 가운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뉘우침으로 부르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보다시피 수세기 동안 블레셋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누구라도 다른 방안을 제안했어야 했으나, 삼손의 시대에 그들은 이에 만족했었는 듯합니다.(삿15:11)</p>
<p>Seeing this situation, surely we have to marvel at the God of Israel. What does he do when he has a people who refuse to forsake Baal and have no desire to forsake Philistia? A people who have grown so used to bondage that they don’t even have sense to call out for relief? Here the very God who judges them begins to work their deliverance anyway. That is grace – grace greater than all our sin, than all our stupidity. Surely we cannot fail to rejoice in such a gracious God! For if God’s help were given only when we prayed for it, only when we asked for it, only when we had sense enough to seek it, how poor and destitute we would be.</p>	<p>이러한 상황을 보매,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탄해야 합니다. 바알을 저버리기를 거부하고, 블레셋을 버릴 마음이 없는 그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행합니까? 속박에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 구제를 위한 외침의 지각조차도 없는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여기, 그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 우리의 모든 죄보다 위대하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보다 위대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이 오로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만, 오로지 우리가 청할 때에만, 오로지 이것을 구하기 위한 충분한 지각이 있을 때에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궁핍하고 곤궁하겠습니까.</p>

<p>2. <u>The God of the Impossible</u> (vv.2-5) In verses 2-3, we are introduced to Manoah, from the tribe of Dan, and his wife – who remains nameless, and yet is the real heroine of this chapter. And so, as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er”, God began to act to save his people. Samson is the only judge chosen before he is born, or even conceived. Although Manoah’s wife was “sterile and childless”, the angel told her that she was “going to conceive and have a son”. She must not drink alcohol, or eat anything unclean, or cut his hair, because this son “is to be a Nazirite, set apart to God from birth, and he will begin the deliverance of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p>	<p>2. 불가능한 일의 하나님(2-5절) 2-3절에서, 우리는 단 지파의 마노아와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이 장의 진정한 주인공인 그의 아내를 소개받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잉태되기 전에 선택되어진 유일한 사사입니다. 비록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사자는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태에서 나오므로 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p>
<p>The Nazirite vow to which the angel refers is found in Numbers 6:1-21. It contained 3 basic stipulations: a Nazirite was not to cut hair during the period of the vow; was not to drink any produce from vines, alcoholic or non-alcoholic; and was not to have contact with any dead body. The purpose of the Nazirite vow was to ask for God’s special help during a crucial time. It was a sign that you were looking to God with great intensity and focus. As is clear from Numbers 6, the Nazirite vow was made voluntarily and for a definite period of time. But Samson was being born into the Nazirite state involuntarily (his parents were taking the vows for him), and he was to stay a Nazirite all his life. His mother was not to drink wine or eat unclean foods, because the Nazirite vow started immediately – when Samson was in her womb! Samson was truly to be “set apart to God from (and before) birth” (v.5).</p>	<p>사자가 지시한 나실인의 서원은 민수기 6:1-21절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3가지의 기본적인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나실인은 서원의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알콜이나 무알콜이나 포도나무로부터 생산된 그 어떤 것도 마시지 말며, 그 어떤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의 목적은 중대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단히 열렬하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표시였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명확하듯이, 나실인의 서원은 자발적으로, 구체적 기간에 대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비자발적으로 나실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의 부모가 그를 위해 서약하였고), 그는 그의 평생동안 나실인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곧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 삼손이 그녀의 태중에 있을 때에 말입니다! 삼손은 진실로 “태에서 나오므로부터(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자가 되었습니다 (5절).</p>
<p>This special birth points us forward, of course, to the birth of Jesus. Indeed, God has often worked in the world through a child whose existence, humanly speaking, is impossible. Isaac, the son whom God had promised to Abram, and through whom would come blessing to the world (Genesis 12:1-3), was born to Sarah who was barren. Hannah, the mother of the judge and prophet, Samuel, had been unable to bear children. John the Baptist, who would announce the coming of the Lord himself, was born to Elizabeth, who was “barren....and well along in years” (Luke 1:7). Mary’s pregnancy was impossible for a different reason – she was a virgin. In the birth of Jesus, the degree of miraculousness goes off the scale – for all the other babies, God’s power opened women’s wombs so that they could conceive naturally, but with Mary, God enabled her to conceive without a human father at all. Each of these births was something the mother was humanly incapable of – God was showing that the outworking of his salvation promises was something no human could manage.</p>	<p>이러한 특별한 출생은 우리에게 당연히 예수님의 출생을 시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종종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말해, 존재가 불가능한 어린 아이를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으며, 그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창12:1-3) 아들인 이삭은 불임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은 “잉태를 못하며...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눅1:7)던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다른 이유에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그녀는 동정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 그 현묘함의 정도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 모든 다른 아기들의 경우, 하나님의 능력은 여성의 태를 열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연적으로 품어질 수 있었으나, 마리아의 경우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전혀 없이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출생은 그 어머니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약속의 외부작업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p>

<p>There are 2 important ways in which the birth of Samson, and those of Isaac, Samuel and John, are different from that of Jesus. First, the others births each happened in the shadow of disgrace. In ancient times, a woman's fertility was a major part of her honour and dignity. And Israelite women, remembering God's promise to Eve that a Saviour would be born who would defeat the devil and undo the effects of sin, would have longed to participate – potentially – in the fulfilment of that promise. In the case of these women –Sarah, Hannah, Elizabeth and Manoah's wife – God visited them in mercy and lifted the shame and disgrace, bringing honour and joy. But the birth of Jesus brought disgrace to mother and son. We should never forget that our Saviour was born in scandal and suspicion. This reminds us that while the other "saviours" gained honour and glory in order to do their work, Jesus lost all his honour and glory to do his (he indeed humbled himself!)</p>	<p>삼손의 출생과 이삭, 사무엘 그리고 세레 요한의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과는 다른 2가지의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의 출생은 각각 불명예의 그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대 시대에, 여성의 수태 능력은 그녀의 영예와 위엄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죄의 영향을 무효화시킬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잠재적으로 이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기를 열망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 – 사라, 한나, 엘리사벳 그리고 마오나의 아내 – 하나님은 이들을 자비로 찾아가셨고, 수치심과 불명예를 걷어내고 영예와 기쁨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불명예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구설수와 의혹 속에서 태어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 영예와 영광을 얻었던 반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잃으셨음을 (게다가 그는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상기시킵니다.</p>
<p>Second, the salvation Samson would bring would be incomplete. He would only "begin the deliverance of Israel from the....Philistines" (v.5). Samson is the last judge in the book of Judges, but he points beyond himself to the one who would complete the victory over the Philistines: to King David, God's king anointed by Samuel. And David's salvation was also incomplete, because he provided rest from Israel's enemies but could not bring victory over the sin of his own heart, far less his people's. Only Jesus' salvation is a complete salvation – in this sense, only Jesus finished the job. As the angel told Mary's fiancé, Joseph: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Samson points us to David, and beyond him to the greater David – Jesus.</p>	<p>둘째로, 삼손이 가져왔던 구원은 미완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5절). 삼손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지만, 그는 그를 넘어서는, 블레셋 사람에 대한 승리를 완성시킬 자를 시사합니다: 사무엘에 의해 임명되었던 하나님의 왕, 다윗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구원은 역시 미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평온을 제공하였지만, 그의 백성들의 것보다 훨씬 덜한, 스스로의 마음의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구원만이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사역을 끝마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하였던 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1:21). 삼손은 우리에게 다윗을 시사하고, 그를 너머 다윗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시사합니다.</p>
<p>3. Faith and Obedience (vv.6-22) When Sarah heard that she would become pregnant despite her barrenness, she laughed with disbelief (Genesis 18:9-15). Samson's mother, though, showed complete faith in the Lord's ability to do the impossible. She believed the word from God, delivered through his messenger, the angel of the Lord, just as Mary would 1,200 years later, saying to the angel Gabriel,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Luke 1:38). Further, Samson's mother obeyed the word from God. She accepted the need to apply to herself the Nazirite behavioural code in order to have a son who was used in God's service. Both Manoah's wife and Mary trust that God will do what he has planned and promised and, at cost to themselves (adhering to the Nazirite vow for Samson's mother, shame and disgrace for Mary), become obedient to that plan. This is faith.</p>	<p>3. 믿음과 복종 (6-22절)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을 때, 그녀는 불신함으로 웃었습니다(창18:9-15).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는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리아가 1,200년 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1:38) 라고 말한 것 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그의 전령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되었던 아들을 가지기 위한 나실인의 품행적 관례를 그녀 스스로에게 적용할 필요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마리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삼손의 어머니의 충실한 나실인의 서원의 이행, 마리아의 수치심과 불명예), 이러한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p>

<p>Samson's father also shows faith. He asks God to grant them a return visit from the angel to teach them "how to bring up the boy who is to be born" (v.8). This isn't a lack of faith in God on Manoah's part. He assumes that the promise will come true – that a boy will be born. His request is not for proof that they will have a son, but for help to know how to raise the son. The Lord graciously sends the angel back. But the angel will not give them any more specifics. Their son will be set apart, and Manoah's wife must do all that the angel has told her – specifically relating to the Nazirite vow. But the angel will give them no more rules. Manoah – not realizing that this is a heavenly angel rather than a human prophet – offers food to this messenger. The angel refuses it but tells Manoah to "prepare a burnt offering and offer it to the Lord".</p>	<p>삼손의 아버지 또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 사자의 재방문을 허락하시어, "그 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8절)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이는 마노아의 입장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란 약속이 실현될 것을 짐작합니다. 그의 요청은 그들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기를 지를 알기 위한 도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그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그들에게 더욱 상세한 사항들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은 따로 구별될 것이며, 마노아의 아내는 그 사자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된 –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더 이상의 규율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가 인간 선지자가 아닌 천상의 사자임을 알지 못했던- 이 전령에게 음식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 사자는 이를 거절하나, 그에게 "번제를 준비하여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p>
<p>Manoah had prayed for help – wanting to know "what is to be the rule for the boy's life and work" – and that help was apparently refused. But, in fact, Manoah did get the help he needed, but not in the form he was asking for. Instead, God gave Manoah a revelation of who he is. As we have seen when we looked at Gideon, the angel of the Lord is likely the Son of God, a pre-incarnation appearance of Christ. And his name, he says, "is beyond understanding" (v.18). It is too wonderful for a human to grasp. This points Manoah to the angel's glory. Then "the Lord" himself "did an amazing thing....as the flame blazed up from the altar toward heaven, the angel of the Lord ascended in the flame" (vv.19-20). This would be something Manoah and his wife would never forget. The angel of the Lord indelibly prints in their minds his greatness. At last Manoah "realized that it was the angel of the Lord". "We are doomed to die!" he said to his wife. "We have seen God!" He knows enough of his people's history to understand that no one can see God's face and live (Exodus 33:20). But while he panics, his wife remains calm. If the Lord had meant to kill them, he would not have accepted their sacrifices, nor shown them all these things. God had not come near to them to destroy them, sinful humans though they were. In this, he was showing them his goodness.</p>	<p>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를 원하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겉보기엔 그 도움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노아는 그가 필요로 했던 도움을 얻었으나, 그가 청하였던 형태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그가 누구인지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여호와와 사자는 하나님의 아들, 강림 이전의 그리스도의 존재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합니다(18절). 이는 인간으로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이는 마노아에게 사자의 영광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이적이 일어난 지라...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19-20절). 아마도 이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일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위대하게 새겨집니다. 마침내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와 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누구도 살자가 없으리라는 그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출33:20). 그러나 그가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그의 아내는 침착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었다면, 그는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의 인간임에도, 그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그들에게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p>
<p>So, in reply to being asked about how to bring up their God-given son – how to live God's way and please him – the Lord says, in effect, to them: "You need to know me and my character far more than you need more information. All the rules in the world would not be able to give you direction in the innumerable</p>	<p>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며 그를 기쁘시게 할지-, 사실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는 네가 필요로 하는 더욱 많은 정보를 이상으로 나와 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너의 아들과 관련하여 결정하게 될 무수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 이</p>

<p>decisions and choices you will have to make with your son. Only a deep understanding of who I am can give you the guidance you need". As we will see, Samson's own life story indicates that his parents fell quite short in their child-rearing, and failed to show and explain God's character to their son. Yet God's message to them is a message to all of us. We think we need rules, but we need to know God. God does not, and will not, give us a guidebook for every twist and turn, every doubt and decision in our lives. He gives us something much better – he gives us himself.</p>	<p>세상의 모든 규칙들은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내가 누구인지를 깊게 인지하는 것만이 네가 필요로 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보게 될 바와 같이, 삼손의 삶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에 꽤나 부족하였으며, 그들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설명함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세지는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메세지입니다. 우리는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과 모든 의심과 결정을 위한 안내 책자를 주지 않으시며, 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십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건네십니다.</p>
<p>In general, a parent gives a child fewer instructions as he or she gets older. When your child is very little, you must virtually follow them around and say: "Don't touch this", "Don't do that", "Don't go there". A child doesn't know not to put his finger in a wall socket or not to eat dirt from the indoor plant. They need to obey your commands. The older a child gets, the more you expect them to incorporate their parents' values and thinking and wisdom into their own heart so that they don't need detailed instructions all the time. In order to guide children into maturity, parents must increasingly move from lots of external rules to internal motives and principles of wisdom. In the same way, Christians in the New Testament receive far fewer rules and regulations than believers in the Old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 so much of what you could eat and do and wear was prescribed. And then, on the high priest's ephod, there were the Urim and Thummin, which gave "yes" and "no" answers to direct questions to God. What a huge amount of guidance and therefore certainty they could have of God's will. Many Christians consider this a more advanced level of guidance than we have today. Like Manoah, we would like to have considerably more regulations.</p>	<p>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성장할수록 보다 적은 훈시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 여러분은 사실상 그들을 따라다니며 "이건 만지지마라", "저건 하지마라", "저기는 가지마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벽의 콘센트에 그의 손가락을 넣지 말아야 함을 모르고, 또는 실내용 화초에서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야 함을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명령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여러분은 더욱 그들에게 부모의 가치와 생각, 지혜를 그들 스스로의 마음에 부합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항상 자세한 지시사항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을 성숙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점점 더 많은 외부 규칙으로부터 내적 동기와 지혜의 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믿는자들 보다 더욱 적은 수의 규칙과 규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입을 수 있었던 너무 많은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하나님께로의 직접적인 질문에 "네"와 "아니오"의 대답을 주었던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인도함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확실성입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욱 발전된 수준의 인도함으로 생각합니다. 마노아처럼, 우리는 상당히 더 많은 규율을 갖기를 원합니다.</p>
<p>But that is to mistake external rules for a mature relationship. Paul says that the Christian is not to be "conformed", but rather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omans 12:2). We don't get lots of prescriptions. We do, however, through the Holy Spirit, get God, and enjoy knowing "the mind of Christ" (1 Corinthians 2:16). We can look at his rescue on the cross, and his resurrection in triumph, and see the character of God much more clearly than even the greatest heroes in the Old Testament could. We don't need to know about God through his external standards when we can know God through his Spirit. We need to remember the lesson Manoah was taught!</p>	<p>그러나 성숙한 관계를 위한 외적인 규율은 착각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은 관습에 "순응하지" 말고, 그 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롬12:2). 우리는 많은 양의 처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얻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고전2:16). 우리는 그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승리 가운데 그의 다시 사심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구약의 위대한 영웅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 그의 외적인 기준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노아가 배웠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p>

<p>4. <u>A Distinct Pattern</u> (vv.24-25) In accordance with God's promise, Manoah's wife "gave birth to a boy and named him Samson" (v.24). The name means "little sun". Since the sun was considered a god by many Canaanites, this is another clue that Israel, while not rejecting the Lord outright, had combined half-hearted worship of him with worship of other nations' gods.</p>	<p>4. 뚜렷한 양식 (24-25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24절). 이 이름은 "작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으로 간주되었기에, 이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을 동안,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의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성의없는 예배를 병용했었다는 또 다른 단서입니다.</p>
<p>Verses 24b-25 contain all we know of Samson's childhood. There are only these 2 sentences – a very terse summary – relating in any way to his childhood. Obviously, the writer is not interested in giving us a full biography or he wouldn't have omitted all the details of Samson's childhood. Just as obviously he thinks that Samson's birth story is very important or he wouldn't have devoted so much attention to it. Interestingly, Jesus' story follows the same pattern. Both Matthew and Luke devote significant space to Jesus' genealogy and birth (and early infancy) but we have nothing about his childhood except the one incident in Luke 2:41-52. There is nothing like chapter 13 in the rest of Judges. Samson's is the only nativity story.</p>	<p>24절의 후반부에서 25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삼손의 어린시절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어린시절과 연관된 매우 간결한 요약의 오직 두 문장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작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전기를 소개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삼손의 어린시절에 대한 상세한 모든 내용을 배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것에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도 동일한 양상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예수님의 계보와 출생(그리고 초기 유아기)에 커다란 부분을 쓸지만, 우리는 누가복음2:41-52의 하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의 어린시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13장과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삼손의 그것이 유일한 탄생의 이야기입니다.</p>
<p>Why then this pattern? Why would the writer single out Samson's nativity and make such a point of it? Because he wants to show that, at least in this case, God didn't merely raise up a deliverer, a saviour-judge, who was, as it were, already available (like Ehud or Gideon). Rather, he grew one right from the womb. It is crucial that we see this, so that we don't think that God's salvation is always an ad hoc, band-aid solution, a piece of crisis management, instead of a plan that God has had in mind far in advance. This is exactly what dumbfounds and gladdens us about the Greater-than-Samson, Jesus Christ, who ransomed us at such great sacrifice and cost – in whom we have so great a salvation. As the apostle Peter says in his first letter: "God chose him as your ransom long before the world began, but now in these last days he has been revealed for your sake" (1 Peter 1:20 – NLT). Surely it boggles the imagination, let alone the mind, to think that something fro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could be for my sake, for your sake. Praise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u>Amen</u></p>	<p>그렇다면 왜 이러한 양상일까요? 왜 작가는 삼손의 탄생을 지목하고 이를 주시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단지, 이를테면 에훗과 기드온 같은, 이미 가능했던 구원자를 세우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태에서부터 한 구원자를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계획이라는 대신에, 항상 즉석의 임시방편이며, 위기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보다 위대한, 큰 희생과 댓가로 우리를 대신해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 그 안에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 있는 – 와 관련하여 우리를 아연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첫번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벧전1:20-NIV). 확실히 창세 전으로부터의 어떤 것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u>아멘</u></p>